

여성수난서사의 전복 : 사랑·전쟁·혁명의 다시 쓰기

—정연희의 신문연재소설 『불타는 신전』을 중심으로

표유진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 2 사랑의 ‘전장(戰場)’과 생명의 불꽃
- 3 죄 없는 모성과 ‘이브(Eve)’들의 공동체
- 4 실패한 혁명과 영원을 향한 나선형의 투지
- 5 나가며

정연희의 신문연재소설 『불타는 신전』(『조선일보』, 1965.1.1-1965.11.21)은 1950년대 정연희 단편소설의 실존주의적 성격과 1960년대 정연희의 다른 장편소설의 여성주의적 성격이 교차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남성 중심적인 전후문학장의 주류인 소위 본격문학과 주변으로서의 대중문학의 장르적·젠더적 이분법을 교란하는 『불타는 신전』의 서사적 특수성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배경 속에서 여성인물의 성적 수난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면서도 전후문학과 멜로드라마의 재신성화를 위한 전형적인 여성수난서사를 비틀어 한 인간으로서 실존적 자아를 확립해나가는 청년 여성과, 사랑을 통해 고독과 허무를 이겨내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불타는 신전』은 전쟁을 여성의 실존적 자각과 타자성의 자각을 이루는 계기로 형상화하며, 여성주체들이 사랑을 통해 모성을 재의미화하고 관념화된 사회제도에서 벗어난 ‘이브’들의 여성동성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혁명이 실패하면서 자매애적 공동체도 와해되지만, 이는 오히려 세계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실존적 조건을 상기시킨다. 뿐만 아니라 『불타는 신전』은 반복되는 여성수난의 플롯을 근대의 직선적 진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성을 갖는 나선형의 플롯으로 새롭게 구조화함으로써 실존적 주체로서의 청년 여성의 투지를 형상화한다. 이는 196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사랑, 전쟁 그리고 혁명을 문학을 통해 여성이라는 타자의 시선에서 재사유하는 여성작가의 독창적 시도로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국문핵심어: 여성수난서사, 『불타는 신전』, 실존주의, 여성공동체, 신문연재소설

1 들어가며

정연희는 195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과류상」으로 등단한 이래 30여 편의 장편과 단편집 10권을 출간하며 최근까지 긴 세월 동안 창작에 매진해온 작가이다. 그럼에도 정연희는 기존 연구사에서 소외되어 왔다. 최근에 와서야 다시 시

도되고 있는 초기 단편소설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며¹, 기존의 정연희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1960년대 이후의 장편소설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²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장편소설 연구에서 『불타는 신전』(『조선일보』, 1965.1.1-1965.11.21)³이 언급조차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특징적이다. 여성잡지에 연재된 『목마른 나무들』(『여원』, 1961.11-1963.4), 『아가(雅歌)』(『여상』, 1963.9-1964.12)나 전작소설로 출간된 『석녀(石女)』(문예사, 1968)와 달리 『불타는 신전』은 신문연재소설이며, 영화화되거나 여러 번 단행본으로 재출간된 다른 소설들에 비해 당대에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재 전후의 작가 인터뷰 외에 『불타는 신전』과 관련된 당대의 평론이나 기사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불타는 신전』이 연구사에서 소외된 이유가 인지도 문제는 아니겠으나, 당대의 미지근한 반응에서 당대 문학 장에서 모호한 위상을 가졌던 『불타는 신전』의 특수성을 상기해볼 수는 있다.

정연희는 첫 신문연재소설인 『불타는 신전』을 연재하기 전 인터뷰에서 『목마른 나무들』, 『아가(雅歌)』와는 차별화된 “아주 이질적인 것”을 쓰겠다고 포부

-
- 1 천이두, 「에고의 구도적 대현실적 자세—정연희론」, 『현대한국문학전집』 13, 신구문화사, 1965, 472-476쪽.; 이상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성적 투시—정연희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343-387쪽.; 연남경, 「1950년대 문단과 ‘정연희’라는 위치—전후 지식인 담론과 실존주의 수용의 맥락에서」, 『구보학보』 제27호, 2021, 89-121쪽.; 표유진, 「1950년대 소설의 여성표상 전유와 몸 연구—정연희, 한말숙, 강신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2 최미진,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자리매김 방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395-417쪽.; 김현주, 「‘아프레 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315-335쪽.; 송인화, 「1960년대 연애 서사와 여성주체—정연희 「석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143-175쪽.; 송인화,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자기세계’ 구축 방식과 나르시시즘의 의미」, 『비평문학』 제35호, 한국비평문학학회, 2010, 211-239쪽.; 송인화,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85-415쪽.
 - 3 본고의 인용문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정연희, 『불타는 신전(神殿) 上/下』, 대운당, 1979. 에서 인용하였으며, 수록된 권과 쪽수만 표기한다.

를 밝혔으며, 전쟁을 배경으로 여성심리와 애정관의 심층적 변화를 처참함과 고독 속에 써내려갈 것이므로 “서정적인 면이 결여될 우려”를 감수하겠다고까지 발언한 바 있다.⁴⁵ 작가 스스로 여성의 애정관에 대해 쓰겠다고 했던 만큼 사랑은 중요한 소재이다. 그러나 낭만적인 연애나 가정 안팎의 사건사고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전장 속을 오가며 겪는 수난을 초점화한다는 점, 1950년대 단편들과 유사하게 실존문학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점은 『불타는 신전』만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불타는 신전』은 당대의 젠더화되고 이분화된 문학 장의 주류(본격문학)와 주변(여류, 대중문학)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는 모호한 성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다.⁶ 그러나 이는 역으로 이 소설의 경계 교란적 위상을 반증한다. 그러한 교란성은 전쟁 속 여성수난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국 문학사 속 ‘전형적인’ 여성수난서사 플롯을 위반하는 『불타는 신전』의 서사와 인물 구성에서부터 찾아진다.

4 「여성심리의 심층을 파헤치고 싶어요…」, 『조선일보』, 1964.12.22.

5 실로 『불타는 신전』은 1960년대 정연희의 장편소설의 서사전략의 공통된 특징인 애정의 삼각관계의 도덕적 결말과 같이 대중에게 흥미와 안정감을 주는 서사구조, 가부장적 여성성의 과장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을 통한 저항 등과는 사뭇 다른 서사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분석은 1960년대 정연희의 장편소설을 ‘대중소설’로 명명하고 『목마른 나무들』, 『아가』, 『석녀』의 대중서사전략을 비교한 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탐색한 최미진의 연구를 참고하였다.(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정연희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집』 제25권, 한국문학회, 1999, 77-96쪽.)

6 이와 관련하여 연남경은 정연희의 1950년대 단편소설에 대한 당대 공론장과 문학사, 연구사적인 무관심의 근거를 추정하면서 하나의 합리적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정연희가 관념적인 지식인 작가의 문학 혹은 실존주의 문학 계보에 해당하는 소설을 다수 창작하였으나 ‘여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당대 문학 장에서의 위치가 모호했을 것이며, 이러한 초기 단편의 특수성이 이후 여성주의적 관점에 편향된 정연희 소설의 연구사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연희의 1950년대 소설에 대한 분석과 당대 비평담론의 젠더적 배타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정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연남경, 앞의 글, 90-94쪽.) 이와 유사하게 1960년대에 연재된 소설인 『불타는 신전』은 여성주인공을 중심으로 당대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극한의 시대 상황 속 여성들의 실존적 투쟁에 더 천착하고 있다. 따라서 『불타는 신전』은 당대에 ‘여류’의 대중문학이라는 편견 아래 그 실존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을 수 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에 치중한 기존 연구에서도 조명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여성의 수난과 민족의 수난이 동일선상에 놓임에 따라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가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순수성의 상징으로 이상화되는 은유는 한국문학사에서 쉽게 발견된다.⁷ 특히 한국전쟁이 남긴 민족적 상흔을 여성의 성적 위기와 방황으로 은유하는 여성수난서사는 ‘여성의 순결의 회복 혹은 타락과 죽음을 통한 남성의 주체화’라는 가부장적 민족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피터 브룩스의 멜로드라마적 양식에서도 여성은 도덕적 선의 상징이며⁸ 멜로드라마의 기본 플롯은 악인에 의해 위기를 겪으면서 선의 승리를 증명하고 사랑을 보상으로 수렴하는 여성의 수난서사로 구성된다.⁹ 그러나 『불타는 신전』은 여성인물에게 반복되는 성적 수난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사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사랑을 소재로 한 신문연재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후문학과 멜로드라마의 여성수난서사의 공식을 모두 위반한다. 『불타는 신전』은 여성의 성적 위기를 실존적 위기로 형상화하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여성인물의 생명력과 사랑은 선악의 관념이나 민족적 순수성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성수난서사의 민족주의적 은유나 멜로드라마적 공식을 위반함으로써 모색되는 『불타는 신전』의 여성인물들의 실존적 자각의 과정과 특징, 그리고 전쟁과 혁명이라는 배경과 사랑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주인공 강하영의 실존적 자각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여성인물들의 복잡하고 위반적인 애정관계가 도덕적 결말이 아닌 모성의 재의미화와 공동체적 자매애로 나아가는 서사구조의 전복성을 확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혁명의 실패에 대한 여성인물의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전복된 여성수난서사의 플롯을 역사적·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독해해보고자 한다.

7 관련된 연구로는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5-134쪽. 참고.

8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71쪽.

9 멜로드라마적 양식에서 여성이 겪는 수난이 반드시 성적인 위기는 아니더라도, 여성의 진실된 사랑과 도덕적 순수성에 대한 추구는 결국 “가장 투명하고 수식이 없는 유아적인 형식으로” 순수와 결백을 호소하는 여성성을 양식화한다. 순진무구하고 영적 순수성을 지닌 여성성이 감정적 과잉과 과장된 승고로 도덕적 승리를 형상화하는 것이다.(위의 책, 85쪽.)

2 사랑의 ‘전장(戰場)’과 생명의 불꽃

『불타는 신전』은 한국전쟁의 전세 변화를 중심으로 인민군 통제하의 서울, 전쟁터가 된 서울, 피난지 부산, 그리고 전후의 서울로 이동하는 강하영의 노정을 따라가며 전개된다. 그러한 노정은 성적인 수난들과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사랑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하영에게 “사랑이란 인생의 판도(版圖) 위에서 하나의 보람 있는 전장(戰場)을 이룩하는 일”(下, 6)로서 실존적 투쟁의 장이다. 하영이 겪는 수난들과 그 의미는 생사의 경계이자 운명과 존재가 충돌하는 시공간 즉 “위기, 급격한 교체, 운명의 예기치 않은 급변”¹⁰이 일어나는 크로노토프(時空性, Chronotope)¹¹ 속에서 잘 드러난다. 하영이 성적 수난을 경험하는 시공간은 공통적으로 죽음을 상징한다. 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 한가운데 위치한 토막, 고립된 저택, 어두운 방, 골목 등은 어둡고 습한 무덤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출구 혹은 창문을 통해 인지되거나 소리나 진동, 빛으로 감각되는 그 공간의 바깥은 탁 트인 대지와 하늘이다. 불타는 건물들이나 붉게 타오르는 하늘, 쏟아지는 폭격에 의한 진동, 총성과 폭발음 등은 그 자체로는 전쟁의 상징이다. 그럼에도 하영이 경험하는 고통이나 내적인 방황과 겹쳐질 때 전쟁의 수난은 오히려 실존적 자각의 계기가 된다.

가령 하영이 처음으로 성적 위기를 경험하는 어두운 토막은 무덤과 같은 공

10 미하엘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창작론(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諸)문제)』, 중앙대학교출판부, 2003, 222쪽.

11 시간(chromos)과 공간(topos)을 의미하는 두 그리스어의 합성어인 ‘크로노토프(Chronotope)’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지 않으며 함께 연관될 때 의미를 산출함을 전제하는 ‘시공성(時空性)’이다.(서정철, 『인문학과 소설 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426쪽.) 바흐친은 라블레 소설 속 “시간을 경험하는 특정한 형식과 시간과 공간 간의 특정한 관계, 즉 특정한 크로노토프”에 주목하여 라블레의 과업을 “중세적 세계관의 붕괴와 함께 해체되어가고 있는 세계를 새로운 물질적 기초를 바탕으로 재건하는 것”으로 제시한다.(미하엘 바흐친,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98, 407쪽.) 또한 바흐친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에서 ‘문턱’의 경계적인 크로노토프를 발견하는데, 이러한 크로노토프는 “變形과 交替, 生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상황바꾸기의 時空性”으로 특징지어진다.(김미현, 『金裕貞 小説의 카니발적 構造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33쪽.)

간으로서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와의 대면을 상징한다. 즉 하영의 수난서사는 실존적 주체성의 출발점인 “본원적인 절망”인 죽음의 자각에서부터 시작된다.¹² 그리고 그 토막은 탁 트인 벌판에 위치해 있다. 토막을 탈출해도 도망칠 방향을 찾기는커녕 숨을 곳도 발견할 수 없는 “넓고도 아득”(13)한 벌판은 폭격과 사내로부터 무작정 달아나야 하는 하영의 삶의 조건을 상징한다. 토막으로 돌아간다면 폭격을 피할 수는 있어도 겁간을 피할 수 없고, 이대로 벌판을 내달린다면 죽음을 감수해야 한다. 구원도 없고 존재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없는 고독한 ‘양자택일(兩者擇一)’의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폭격과 총성이 쏟아지는 아득한 벌판은 의미를 알 수 없는 부조리한 세계에 “아무런 예비지식도 준비도 없이”(上, 57) ‘내던져진’ 인간의 실존(實存)을 상기시킨다. 이는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¹³에서 ‘내던져져 있음(被投性, Geworfenheit)’으로, 사르트르가 “자유의 선고(宣告)”로 표현했던 실존적 주체가 의지와 무관하게 부여받은 고독한 선택과 책임 즉 불안의 근원에 대한 깨달음이다.¹⁴

그 깨달음 앞에서 하영은 허무주의¹⁵나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

12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93, 49쪽. 1950년대 담론장에서 실존주의는 사르트르의 논문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을 비롯한 사르트르, 카뮈, 지드 등의 이론과 문학 텍스트들의 번역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철학적이고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용어로서 복잡하게 정의되었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표와 연관되어 지식인들에게 수용되었다. ‘자유’의 기표와 실존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제35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01-147쪽 참고.

13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188쪽.

14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23-25쪽.

15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실존주의적인 문학에서 ‘허무주의’는 중요한 비판의 지점이었다. 김현의 「허무주의와 그 극복」(『사상계』 제16권 2호, 1968, 사상계사, 297-309쪽.)을 비롯한 당대 평론가들의 평론에서 1950년대 신인작가들의 실존주의적 성격이 문학장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작성된 한국문학사 속에서도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선우휘, 이범선 등 1950년대에 등장한 신인 작가들은 신세대 작가 혹은 전후세대로 기성작가와 분리되었으며, 그들의 문학은 무의미와 관념성, 허무주의 등을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0, 360-379쪽.; 권영민, 『한국문학사』 2, 민음사, 1994, 150-167쪽.) 그러나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정연희 등 여성작가들을 포함한 신인작가

영은 절망적인 상황과 폭격의 불꽃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매혹됨으로써 주체성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는 고립된 별장 내부에서 배기정에게 몸의 자유를 빼앗기는 순간에도 반복된다. 하영은 “자기 의지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던져져 있”는 상태에서 구속된 “죄인”의 몸을 연상하며 삶 자체를 별처럼 감각하지만(上, 26), 가부장적 폭력성과 전쟁의 폭력성 사이에 놓인 창턱에 허리를 걸치고서 뛰어내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저항을 멈추지 않는다. 어두운 별장과 불타는 별판 사이의 창(窓)은 엄습하는 위기 속에 자신을 지키려는 위태로운 실존적 크로노토프로서 “위기와 급변이 일어나는 문턱”과 같은 경계와 변형의 시공간이라 할 수 있다.¹⁶ 결국 전장의 폭음과 겹쳐지는 배기정의 폭력에 유린당하지만, 그 절망적 순간에 하영은 유리창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화염”(28)에 매혹된다. 그 화염은 별판에서 보았던 불타는 천지, 위태로운 순간에도 장엄함을 잃지 않는 타오르는 대지의 아름다움을 연상시킨다. 배기정에게 겁간 당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불꽃은 하영의 존재와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와 동화되어 몸 내부로 전이(轉移)된다.

무서운 통증과 함께 갑자기 작렬하는 하얀 불덩어리를 보았다. 그 별판의 허공에서 작렬하는 조명탄의 백색 불덩어리. 그것은 거뒤틀릴 수 없는 노여움으로 그 여자의 몸 속에서 타고 있다. 달덩어리가 미쳐버린 듯, 질서정연하게 궤도 위를 가던 만월(滿月)이 갑자기 미쳐버린 듯한 그런 차가운 불빛이 그의 마음 속에서 타고 있다.(上, 30)

어둠을 밝히는 만월과 동일시된 전쟁의 조명탄, 광기를 동반한 불덩어리는 하영의 유린되는 몸 내부를 거쳐 몸과 달리 저항성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전이된다. 마음, 내부는 몸의 물질성에 한정되지 않는 실존을 상징하며, 관념화된 이상, 목

들의 문학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성격이 오히려 현실과 관념을 향한 저항과 도전을 담고 있음을 밝히거나 작품의 의의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발견된다.(정보람, 「1950년대 신세대작가의 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연남경, 앞의 글; 표유진, 앞의 글.)

16 미하엘 바흐친, 앞의 책, 2003, 194쪽.

표, 의미를 파열시키고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살아있음을 상기시킨다. 이후 불꽃의 이미지는 하영에게 반복되는 수난 속에서 “스스로의 내부에서 거침없이 타오르는 불길”(上, 335)로서 계속해서 등장한다. 불꽃은 존재를 위협하는 죽음과 관념에 굴복하지 않는 불복종의 상징으로 작동한다. 사실상 죽음을 상징하는 전장의 불길이 생명력으로 내면화됨은 역설적이다. 이는 여성의 주체화를 방해하는 ‘상황적 조건(la situation)’¹⁷으로서의 가부장적 질서와 연관된다. 전장에서 하영이 겪는 수난이 생사의 갈림길보다도 성적인 수난 즉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폭력에 더 초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영은 죽음의 운명뿐만 아니라 타자화된 여성성에서 비롯된 운명 앞에 내던져진 존재이기도 하다.

하영은 “하이칼라 여자”(上, 17)이자 집안도 좋은 ‘여대생’이라는 이유로 소문의 대상이 되며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서 성적 위기를 마주한다. 하영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내를 유혹한 자”(上, 20)로 비난받으며,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받는 것만이 안전하고 행복”(上, 29)할 수 있는 길이라는 강압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노출된다. 1950~1960년대의 가부장적인 국가 재건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근대적 주체가 아닌 가정에 귀속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고 타자화하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하영을 유린하는 남성들과 주변인에 의해 반복 인용되는 수행성을 통해 공고해지는 양상¹⁸은 『불타는 신전』 전반에서 발견된다. 따라서 전쟁의 경험은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과의 대면인 동시에 가부장적 질서와 관념들이 여성에게 부과한 타자성을 자각하게 되는 이중적 사건이며, 그러므로 전쟁이 끝나도 관념에 둘러싸인 사랑이라는 전장(戰場)은 지속된다. 하영이 생명력과 의지로 내면화한 두렵고도 매혹적인 전장의 불꽃의 이미지 역시 전쟁이 갖는 양가성¹⁹과 직결되어 있다.

17 ‘시튜아시옹’은 객관 세계에서 인간이 처한 상황적 조건을 의미하며, 변동하는 세계의 가치 체계, 질서와 관련된다.(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37쪽.)

18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리플』, 문학동네, 2008, 205쪽.

19 전쟁의 이중성은 1950년대 중·후반 여성담론의 역동성의 근거가 된다. 강지윤이 지적한 것처럼 전쟁은 남성성과 민족, 국가의 결합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강화하지만,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하는 남성성의 현실적인 약화라는 ‘부정합적’ 상황을 가져왔다.(강지윤, 「원한과 내면-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 『상허학』)

여성의 타자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형상화되지만 그 “진창길”(上, 57)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가는 하영은 생의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초월적인 구원을 바랄 수도 없는 단독자(單獨者)로서의 인식과 맞물린 생의 의지는 나아가 자기 존재의 고유성²⁰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진다.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은 끝없는 불안을 수반하지만, 하영은 “그것이 설혹 치욕이라든나 혼자만의 것일 뿐야요.”(上, 28), “아무도 우리를 버릴 순 없어.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면……”(上, 75), “다 알아서 할 테니까!”(上, 186) 등 홀로 겪어내고 지탱하는 삶에 대해 역설한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단독성에 대한 집착으로 불가피한 존재의 한계에 대응하는 것이다.

단독성에 대한 하영의 집착은 피난길에서 돌아서서 전쟁터가 된 서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정점에 이른다. 하영을 돌아서게 한 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으며 홀로 겪어내야 하는 삶을 홀로 결정하여 행동하고자 하는²¹ 단독성에 대한 욕구였다. 그것은 배기정을 배신한 아버지 강의원의 “양보없는 질긴 생명과 잔인한 이기(利己)”(上, 166)와는 다른 것이지만 도덕적 선악의 문제에 종속되지도 않는다. 목숨만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삶에 대한 권리, 자기 존재를 창조할 권리에 대한 의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영은 “아무 대증없이 그저 밀리고 쏠릴 뿐”(上, 166)인 피난민의 남하 행렬과 반대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길”(上, 172)을 선택한다.

보』 제50호, 상허학회, 2017, 9-45쪽 참조.) 그러한 부재하거나 훼손된 남성성의 공백이라는 전쟁 직후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 바깥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삶을 확장한다. 물론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는 가정과 사회, 국가의 동력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재건하기 위해 여성성을 끊임없이 타자화하는 부정적 담론이 동반되었다. 그럼에도 새롭게 등장한 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욕망들은 타자화에 맞서는 저항성과 전복성, 그리고 근대화의 계기들을 담고 있었다.

20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로서의 인간이 세인(das Man) 즉 비본래적 자아인 동시에 본래적인 자아를 지니며, 일상적인 세인의 삶에 속한 비본래적 자아와 달리 세속에서 벗어나 고유하고 개별적인 본래적인 자아를 자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진은영, 「니체와 문학적 공동체」, 『니체연구』 제20호, 한국니체학회, 2011, 18쪽.)

21 “하영은 이제 그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작정을 했으면 행동하고, 그런 뒤에 처리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上, 174-175)

그러나 하영은 서울에서 배기정으로 인해 다시 수난을 경험한다. 이는 단독성에 대한 집착과 “고집”(上, 149)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근본적인 문제란 스스로에게 여성성이라는 관념이 이미 내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념적 질서들에 대한 투쟁은 세계와 유리된 개인으로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스스로가 고집해온 단독성이 가해자인 배기정을 가 없게 여기고 온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면화된 여성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깨달음과 함께²² 하영은 마침내 관념의 파열을 경험한다. 하영의 유산(流産)은 그러한 내적인 파열의 상징이며, 이를 계기로 하영의 실존적 투쟁은 가부장적 질서와 도덕, 위계, 이념 등 일체의 관념에 도전하면서 자기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여성의 순결을 순수성으로 치환하는 관념으로 점철된 배기정, 현운석과의 관계는 하영에 의해 거절될 수밖에 없다. 하영은 배기정을 인간답게 만들어보겠다는 책임감이나 현운석의 순수한 이상을 무너트리고 싶지 않다는 위선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반(半)자발적으로 수난 속으로 밀어넣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는 여성성이라는 허위적 관념과의 싸움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킨다. 현운석과의 이별, 그리고 배기정에 대한 거부를 선택하고 감행하는 하영은 ‘관념성에서 비롯된 운명’에 저항하는 단독자이자 실존적 주체가 된다. 특징적인 것은 타자성을 극복하고 자기 존재를 세우려는 하영의 투쟁이 ‘관념과 무관한 사랑’에 대한 지향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한세민을 향한 하영의 자발적인 사랑, 가슴 속에서부터 신전을 불태우며 타오르는 열정적 사랑의 파괴성은 하영과 같은 단독자로서의 존재에게 가능한 사랑의 형태로 제시된다. 그 사랑을 통해 하영은 관념적 세계와 이기(利己)를 넘어 실존적 주체들 사이의 유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22 “하영은 나선형의 계단 난간을 붙들고 아래를 굽어 본다. 턱에 닿았던 숨이 확확하며 눈앞이 아찔한다. 어찌하여 그 지점에까지 이르른 것인지 갑자기 막연해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진다. (배 기정, 배 기정을 향하여 달려온 것일까?) 그는 눈을 감았다. 광인의 커다란 몸체가 계단을 몇 개 사이에 두고 확대되듯이 가까와져 있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쫓아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관념(觀念)이었다. 그것은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 내가 여자였기 때문에…….”(上, 194)

3 죄 없는 모성과 ‘이브(Eve)’들의 공동체

『불타는 신전』의 여성인물들은 공통적으로 정조와 관련된 수난을 경험하였으며 그로부터 비롯되는 ‘죄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강하영, 김주애, 이인화는 모두 그 ‘부적격한’ 여성성과 무관하게 사랑을 성취해나간다. 멜로드라마의 선악 구도와 전후문학의 여성 전형에서 이탈한 이 여성들은 순결하지 않으며 불륜, 낙태, 성매매, 배우자 살해 등 성적인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의 금기를 깨트리는 존재들이므로 타락한 ‘이브(Eve)’와도 같다. 기독교 창세기 신화에 대한 전통적 해석에서 이브는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당한 원죄의 원인 즉 “인류 원죄의 어머니”²³이자 유혹자(tempress)로서 여성성에 대한 타자화의 선두에 놓여있었다.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이브의 지위는 성적 타락과 함께 평가절하되었으며, 순결의 파괴로서의 성관계를 전제하는 여성의 모성 또한 그러한 원죄와 함께 엮인 채 인류에게 필수불가결한 신성이면서도 불결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타자화되었다.²⁴ 가부장적인 질서와 전쟁 속에 여성의 타자성과 주체성 모색을 불가피한 순결의 상실, 사랑, 임신, 출산과 같은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형상화하는 『불타는 신전』 역시 이브들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능동적인 욕망의 실현자이자 인류와 계몽의 시초가 되는 우연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사건의 행위자로 재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²⁵, 『불타는 신전들』의 여성인물들이 공유하는 금기의 위반과 죄의식은 오히려 그 죄의식의 바탕에 깔린 관념으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투쟁의 필연적

23 김복자, 「헤겔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본 이브에 대한 재해석」, 『문학과종교』 제6권 제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1, 137쪽.

24 중세 기독교 문화는 이브를 하느님의 계명을 거부한 죄인, 오만하고 유혹적이며 타락한 나쁜 여자로서 동정수태를 받아들인 순결한 성녀 마리아와 반대되는 여성상으로 재현하였으며, 4세기 금욕적인 교부철학은 성관계를 거치는 결혼과 가정, 출산 즉 영원한 순결과는 양립 불가능한 인류의 운명을 이브의 죄로 인한 결과로 낙인찍고 천사에서 육체로 전락한 이브의 몸을 성적인 것으로 환원하기도 하였다.(이은기, 「욕정의 대상에서 인류의 조상으로-14~5세기 이탈리아에서의 이브인식의 변화-」, 『미술사연구』 제18호, 미술사연구회, 2004, 207, 217-218쪽.)

25 김복자, 앞의 글, 137쪽.

계기로 작동한다. 전쟁이라는 배경은 여성들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극대화하며 불가피하게 유린당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랑하지 않는 가해자의 소유물이 되어야 하거나 비난받아야 하는 부조리를 가시화하기 때문이다. “죄인과도 같은 자세는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진 것일까?”(上, 26)하고 회의하는 하영은 죄의식에 앞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기정에게 자유의지를 짓밟힘을 자각한다. 그러한 하영의 태도는 순결을 잃은 부정(不貞)한 여자가 되었다는 죄의식이나 수치심보다 피해자임에도 죄지은 몸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정조론 자체에 대한 ‘인지’에 가깝다.

오히려 죄의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순결에 대한 이상을 지키기 위해 과거를 숨기거나 부정하려는 자신의 위선적 태도로부터 비롯된다. 하영이 느끼는 죄의식은 하영을 끝없이 순수하고 순결한 여성으로 찬양하는 현운석의 관념적 집착에 맞는 여인일 수 없다는 것보다 그런 여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를 속일 수는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자신을 속일 수도 없는 일”(上, 268)이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현운석 앞에서 하영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나는, 나 자신을 겁내고 있는 거예요.”(上, 265)라는 대답처럼 자기 자신을 직시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며, 이인화 역시 순결에 대한 거짓말이야말로 현운석이 변심한 원인이자 자신의 죄라고 말한다.²⁶ 김주애 역시 매춘으로 유지해온 생활을 자조하면서도 그로 인해 스스로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이로부터 여성인물들의 죄의식이 정조론이라는 관념이 아닌 자기에 대한 솔직함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 관념의 죄의식에서 분리됨으로써 『불타는 신전』의 여성들은 기존의 멜

26 “순결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그 남편을 괴롭힌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의식적으로 숨기려 했던 그 아내의 마음을 미워하는 맘 더 컸겠죠. 분노는 거기 있었어요.”(上, 54) 이인화는 여성의 순결이 여성의 운명일 수 있으니 하영에게 배기정과 관계를 재고해보라고 권하거나, 여성들은 남성들의 정신적인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는 스스로를 알기에 의도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부조리하고 전통적인 여성관을 발화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인화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그 여자 자신의 것일 뿐”일 수밖에 없는 “우발적인 불운”(上, 55-56) 속에서 살아나가는 태도의 ‘성실성’이다. 그 성실성은 운명에 대한 직시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에 달려있다.

로드라마, 민족주의의 여성수난서사를 전복하는 서사를 추동한다. 수난을 거쳐 도덕적 선을 증명하거나 수동적으로 사랑을 보상받는 여주인공의 서사는 부정된다. 오히려 여성들은 순결이라는 관념이 부여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그들의 사랑은 수동적으로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의 적극적 형태를 띤다. “다 소곳이 받는 것만으로 주는 그 사람을 충분히 위하는 것이라고 믿어 왔다.”(上, 340)라는 수동적 여성성에 대한 하영의 성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上, 345)라는 능동적 결단으로 전환된다. 그 능동성은 하영이 배기정의 아내이기를 거부하고 한세민을 향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는 의지의 원천이 된다. “거침없이 점화(點火)된” “숙명의 불길”(下, 159)로서의 사랑을 자각한 하영에게 불륜이라는 도덕적 위반 역시 그 타오르는 불길과 “나의 세계”(下, 162)보다 중요하지 않은 부조리한 가부장적 질서의 관념일 뿐이다. 한세민 역시 “우리가 신(神)을 거역할 수 있는 일은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을 거역할 수는 없”(下, 165)는 것이라며 과거와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사실만으로 하영을 대함으로써 함께 제도 밖의 연인이 되기를 서슴지 않는다.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야.”(下, 167)라고 말하는 연인과 살아있음과 고통, 고뇌를 나눌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하영은 실존적 자아들 사이의 유대와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하영은 결국 강제된 결혼과 강간의 산물인 배기정의 아이를 낙태하는 것으로 한세민을 택하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될지라도 선택에 책임을 지고 사랑을 지키고자 한다. 관념적 허구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랑은 허구에서 비롯된 죄가 아니라 실제적인 죄를 경유함으로써 마침내 가능해진다. 하영은 배기정이 자신을 데리고 월북하려는 것으로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그를 살해하지만, 낙태와 마찬가지로 그 살인은 사랑의 실현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하영은 마침내 기존 질서의 관념이 부과하는 죄가 아니라 진짜 죄를 저지른 죄인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 죄값을 성실하게 치러냄으로써 규정된 “운명의 벽”에 부딪힌 “미래가 없는 사람”(下, 211)에서 벗어난다. 비로소 하영은 “열심히 세상을 살아온 사람”, “괴로움을 딛고 서 있는” ‘인생의 창조자’ 즉 실존적 주체가 되고 “죄 없는 불빛” 아래 온전한 연인이자 가족을 이루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下, 287-290) 그렇게 하영이 지켜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 “순수한 권리” 즉

“나의 온 심령을 기울여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의 권리이다.(下, 181)

형무소에서 하영이 한세민의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가 가부장적 질서 바깥의 ‘죄 없는 모성’으로 재탄생함을 상징한다. 일종의 정화의식 혹은 이교도적인 세례(洗禮)와도 같은 하영의 복역과 출산은 이인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영과 현운석을 사이에 두고 삼각관계를 이루었던 이인화는 하영이 복역하는 동안 그의 조력자가 되며 그러는 사이에 자신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현운석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증거로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스스로의 삶과 존재를 지키기 위한 투쟁 속에서 원치 않는 결혼, 유산과 낙태를 경험했던 하영,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사내의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의 신뢰와 애정을 잃고 고단한 외사랑의 삶을 살아온 이인화. 두 여성은 마침내 “사랑과 생명을 순수하게 받으면서 생긴 아이”(下, 324)를 품음으로써 부정(不眞)한 여인이 아니라 원치 않는 삶을 부정(否定)할 수 있는 여성주체로 거듭나며, 그들의 출산은 더는 죄로 타자화되지 않는 모성, 여성을 넘어 생명력 넘치는 한 인간으로서의 이브의 재탄생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강하영을 중심으로 엮여있는 『불타는 신전』의 인물들은 대중소설의 특징인 우연성의 반복²⁷이 빚어내는 서사적 운명에 따라 각각 연인들이 되고 일종의 공동체적인 관계를 이룬다. 서로 삼각관계를 이루기도 하는 여성들이 라이벌로서 승자/패자, 선/악으로 나누어지거나 도덕적 보상 혹은 처단의 결말을 맞이하는 대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멜로드라마적 공식과 민족주의적 순수의 이상을 전복시킨다. 또한 남성들이 아니라 강하영이 맺고 끊는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지속해나가는 여성들의 관계가 더 강조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불타는 신전』의 중요한 서사들은 모두 여성들이 우연히 만나고

27 멜로드라마 양식의 특징은 우연성의 반복이다. 개연성 없이 진행되는 우연한 만남과 헤어짐은 인물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엮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할 수 있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인 플롯에 사건·사고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한 우연성은 선악구도를 포함한 관습적 구조로 구성된 멜로드라마적 세계에 대한 인상을 강화한다.(진선영, 「한국 대중연에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2쪽.)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된다.²⁸ 『불타는 신전』은 세 남성이 군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맺는 관계는 혁명이라는 거대담론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간접적으로만 전달한다. 반면 세 여성들이 그 남성들과 더불어 서로 조우하고 재회하고 의지해나가는 과정은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이 부적격한 연인들, 제도 바깥의 연인들의 공동체가 여성들 중심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불타는 신전』의 여성인물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는 기존의 남성동성사회(homosocial)²⁹와는 반대로 남성을 매개체로 경유하여 관계 맺음으로써 자매애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일종의 여성동성사회적 특성을 보인다.

여성중심의 공동체 속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관념과 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주체들이자 대상화되지 않으면서도 남성들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나타난다. 여성인물들은 순수성의 관념에 사로잡힌 현운석, 전쟁으로부터 도피하려던 탈영병 한세민, 그리고 이념과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던 독고육을 변화시키고 사랑받는 타자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욕망하는 주체로 재탄생한다. 이들의 위반적이고도 능동적인 주체성은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순수성에서 비롯된 여성의 타자성이라는 원죄의식을 극복

28 하영과 배기정의 잘못된 만남은 이인화와의 인연의 시작이며, 하영과 현운석의 만남은 이인화의 재회로 이어진다. 또한 현운석이 하영을 쫓아 서울로 온 덕에 그의 곁에 있었던 독고육과 김주애의 재회가 이루어지며, 그러한 인연은 하영을 만난 후 더욱 신념을 불태운 한세민이 결국 탈주병이라는 신분을 들키고 다시 군복무를 하면서 현운석, 독고육의 동지가 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29 이브 세지웁은 『Between Men』(1985)에서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의 삼각관계가 사실상 경쟁하는 두 남성 사이의 욕망이며, 여성은 그들의 욕망을 매개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그러한 삼각관계의 결과는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의 동성사회적인 유대이다.(임옥희, 「가족로망스: 외디푸스화와 욕망의 삼각형」,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13, 29쪽.)

레비-스트로스 역시 『친족의 기본 구조』에서 족외혼이라는 여성교환의 결혼제도가 부계혈족의 근간이라고 분석하며, 그로부터 남성동성사회적인 유대에 함축된 남성동성애적 무의식과 근친상간 금지, 그리고 이성애를 연결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이러한 남근로고스 중심적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인 수행성에 주목하며 불안정한 반복의 차연과 패러디로부터 기존의 법과 질서를 전유하고 전복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159-163쪽.)

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여성성과 이브의 재의미화를 보여준다.

이브와 같은 여성인물들의 자매애는 애정의 삼각관계에서 도덕적 선악을 상징하거나 누구 하나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경쟁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 인화는 강하영에게 타자화된 여성성의 자각과 극복을 위해 경험을 전승하며, 반대로 하영은 현운석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서 이인화와 맺는 관계를 통해 이인화가 아내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려던 죄의식에서 벗어나 행동하게 만든다. 또한 하영은 현운석의 순결에 대한 집착을 무너트림으로써 이인화-현운석 부부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삼각관계로 인해 서로 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관계 맺고 성장해나가는 두 여성은 자매애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지속적으로 상반된 성격의 여성들로 강조되었으며, 서로 다른 사랑을 경험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던 하영과 주애 또한 자신의 치부를 밝혀가면서까지 서로를 위하는 우정과 사랑하는 여성들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기반으로 자매애로 발전한다. 그렇게 세 여성들은 ‘순결-사랑-연애-결혼-모성’을 연결하는 낭만적 사랑의 질서와 폭력적인 도덕체계를 위반하는 부적격한 연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자매애를 통해 서로의 사랑의 증인들이자 지속되는 수난 속 의지처가 되어준다. 이처럼 민족, 국가, 이념, 도덕을 모두 위반하는 이적(利敵) 행위를 감수하면서 각자의 결단과 연대로 사랑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연대하는 여성인물들은 『불타는 신전』의 서사적 위반성과 함께 휴머니즘적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인간의 공동체를 창조할 가능성”³⁰을 보여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수난을 견뎌내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여성청년들의 욕망을 상기시킨다.

4 실패한 혁명과 영원을 향한 나선형의 투지

『불타는 신전』은 새로운 공동체의 성공적인 구성과 여성동성사회의 가능성, 가부장적 질서의 전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나 이는 이상적인 결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불타는 신전』은 실존적 자각의 크로노토프를 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통해 구성했던 것처럼 혁명이라는 거시적인 사건을 통해 제도 바깥

30 장 폴 사르트르, 앞의 책, 47쪽.

으로 탈주할 수는 없는 존재론적 조건의 한계를 분명하게 일깨운다. 하영은 단독자로서의 고독과 운명이 혼자만의 것이라는 전제를 자각함으로써 실존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그러나 존재들 사이의 유대가 가능하듯이 법이 상징하는 세계의 질서와 그 질서 속에서 맺어진 다른 관계들 또한 삶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 단절은 오로지 죽음만으로 가능하다. 전후의 부조리한 질서에 대한 다른 결단인 연인들의 공동체가 경계를 교란하더라도 경계 바깥일 수는 없다는 불안감은, 남성인물들의 혁명과 그 실패를 통해 현실이 된다.

세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현운석, 독고옥, 한세민이 주도하는 남성들의 혁명에서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실패한 쿠데타의 주동자, 반역자가 되어버린 연인들의 고통을 법과 도덕 앞에서는 “더할 수 없이 죄많은 여인들”(下, 326)인 자신들의 죄로 인한 벌처럼 공유하는 사랑과 연대를 통해 공적인 영역과 자기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연결시킨다. 그 속에서 여성들의 공동체는 더욱 견고해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남성의 혁명이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다는 “생명과 생명의 진동(震動)”(下, 290) 속에서 여성들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살아온 여인처럼”, “모든 것을 이미 각오한 의연함”(下, 329)으로 구속된 혁명가-연인들을 위한 행동을 함께 해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혁명의 실패는 현대령, 독고옥의 죽음과 주애의 자살로 이어져 부적격한 연인들의 공동체를 와해시킨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영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으며 “살 수 있는 권리”(下, 335)를 역설한다. 하영과 주애의 상반된 선택은 한세민의 생사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 자체에 대한 하영의 강한 의지와 투쟁심에서 비롯된 차이이기도 하다.³¹ 하영은 살아있음의 증거인 사랑이 죽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의 생명을 통해 증명하려 한다.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의 운명에 바로 그 생명으로 맞선다는 역설적인 투쟁은 하이

31 “하영은 눈을 감지 않았다. (지켜 보리라. 이것이 내게 주어진 형벌이라면 피하지 않으리라! 아니, 나는 나의 사람을 이렇게라도 끝끝내 내것으로 하리라! 우리들의 이어진 마음을 시세 운 어느 신(神)이 있었다 해도 나의 눈을 감기지는 못하리라.)”(下, 341)

데거가 개인이 고유한 개별성과 삶의 실존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죽음으로의 선구”라는 실존적 결단을 강조한 것³²과 겹쳐진다. 이러한 투쟁 방식은 하영이 실존적 자각을 이루었던 나선형의 크로노토프에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다. 모든 운명의 시초였던 토막, 폭격과 총탄, 폭력을 피해 무작정 별관을 내달렸던 순간 이후 반복된 수난들은 삶과 사회질서에 대한 무수한 회의와 저항을 통한 성장을 내포하면서도 다시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수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나선형의 여성성장 플롯을 상기시킨다.³³ 나선형의 이미지는 하영이 ‘거지광인’에게 쫓기던 막다른 나선계단과 청운동집의 층계, 배기정의 푸른집으로 향하는 나선형의 언덕길 등으로 반복되기도 하였다. 그 공간들은 하영에게 생과 사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살아있으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타자로서의 운명과의 만남’과 ‘그 운명과의 단절로서의 죽음’ 사이의 경계에 더 가깝다. 소설 전반에서 하영은 그 경계에서 수동적으로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유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며, 설령 그것이 폭력 혹은 죽음으로 이어질지라도 스스로를 내던지는 결단과 ‘주사위를 던지는’ 실존적 선택을 욕망하는 인물이었다.³⁴

32 진은영은 “죽음으로의 선구”라는 실존적 결단이 공동체에 봉헌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고유한 죽음으로서의 ‘탈공동체적 실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이를 죽음과 공동체에 대한 니체의 사유와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은 정연희의 『불타는 신전』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도 유의미할 수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라’는 하영의 내면의 광기어린 외침은 니체의 주사위 놀이에 담긴 우연과 필연 사이의 삶과 생명에 대한 긍정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진은영, 앞의 글, 15-18쪽.)

33 여성의 성장 서사는 나선형의 구조로 해석되곤 한다. 동일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원의 구조나 진보하는 직선의 구조와 달리 나선형의 구조는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매번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앞으로 나아가는 듯하지만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나선적 성장 구조의 이중성은 여성 성장구조의 특수성이면서 동시에 한계로 인식된다.(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78-379쪽.)

34 “문득 광기(狂氣)가 솟구친다. (주사위를 던져라, 주사위를!) 난간 아래는 아찔하다. (나는 지금 무사할 것이고, 다시는 배 기정을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上, 194)/ “어떤 무서운 결말이나 속박이라도 그 뱃속의 생명만큼 그를 위협하는 것은 다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유예의 시간이 끝 없이 지루하고 지겹다. 긴장으로 굳어진 그 자세를 문득 허물어뜨리고 싶은 충동이 있다. (….) 너는 배 기정을 사랑하지 않는다!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너의 죄악이 그 뱃속에 있지 않느냐 뱃속에……./그 뱃속의 생명은 너의 무엇

그 여자는 그 여자의 어두운 운명이 시작되던 그 적치하(赤治下)의 그날 밤을 잠깐 상기했다. 그때, 낮은 사나이의 폭력을 피하여 결사적으로 달아날 때 하늘에는 미쳐버린 만월(滿月)같은 조명탄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등 뒤를 쫓는 것은 총탄. 그 여자는 그것을 피하여 필사적으로 달렸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겨누어진 총구(銃口)를 향하여 달린다. 가슴을 꿰뚫어 그 심장에 구원(久遠)의 불길을 불붙이기 위해서…….(下, 340)

타오르는 불꽃이 상징하는 생명을 걸고 죽음 혹은 타자화라는 양자택일에 맞서는 하영의 실존적 투쟁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선형으로 반복되었지만, 하영은 결코 투쟁을 그만두지 않는 불복종의 자세를 고수하며 새로운 관계 맺기를 시도해왔다. 긴 고통의 시간을 뚫고서 만난 연인의 생사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서 하영은 모든 것이 시작된 밤을 떠올린다. 그로부터 유지해온 이 목숨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명확한 삶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도망치지 않고 총구에 심장을 내놓겠다는 구절은 일견 주애와 같이 연인을 따라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듯하지만, 하영이 심장에 불붙이고자 하는 불꽃은 부조리한 삶과 단절되는 죽음이라는 ‘구원(救援)’이 아니라 아득하고 무궁한 ‘구원(久遠)’ 즉 과거로부터 미래로 지속되는 영원의 불길이다. “구원(久遠)의 불길”은 ‘생명을 앗아가는 죽음에게 생명으로 맞서겠다’는 역설적인 항거방식을 상징한다. 그러한 투지와 영원의 지향은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출구 없는 여성수난의 플롯을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담은 플롯으로 확장시킨다.

땅 위에 엮드린 하영의 자세는 거역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그 어느 것도—./무변대한 하늘. 높은 불 붙는다. 하늘이 어떻게 타는가를 보여 주듯이. 그 앞에 엮드린 것은 어질고 순한 땅. 죽음 속에서 그 무변대한 하늘은 있고, 그 하늘은 무엇으로도 달려지지 않는 목숨. 하영은 그 하늘

이냐? 사랑이냐? 사랑이냐? 주사위를 던져라! 주사위를! 운명을 판가름해줄 주사위를 굴러라!”(上, 198-199)

의 숨결을 이어받을 듯이, 땅 위에 얼굴을 묻은 채 다시 한번 커다랗게 숨을 들이켰다.(下, 345)

흠뻑으로 막힌 네모진 공간. 그것을 어둠이 꽉 메우고 있다. 들판 한 가운데에 잇는 토막(土幕) 속이다./그 안에서 사나이는 쫓고 여자는 쫓긴다. 잡으려는 속도, 잡히지 않으려는 몸짓도 어둠 속에서 허위적거릴 뿐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여자는 땅 위로 쓰러졌다. 순간, 그는 흠냄새를 맡았다. 쓰러진 채로 흠 위에도 뺨을 문질렀다./부드럽다./그는 흠냄새를 길게 들이 쉬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생명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다. 솟구치듯 몸을 일으켰다.(上, 7)

『불타는 신전』은 하늘과 땅, 그 사이에 내던져진 인간으로서의 하영이 타자화된 “죄 많은 손”(下, 297)이 아니라 “고뇌(苦惱)의 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려 오래도록 이어져온 “구원(久遠)의 생명”을 들이마시는 호흡으로 마무리된다.(下, 345) 그리고 이 내던져진 존재의 호흡은 다시 소설의 도입부로 돌아간다. 모든 운명과 수난이 시작된 바로 그 무덤 같은 토막에서 쓰러진 채 흠냄새를 맡고 호흡하는 여성. 그 여성은 살아남기 위해 솟구치듯 몸을 일으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 속 별판으로 달려 나간다. 한 여성이 죽음과 타자성을 극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다시 그 시발점으로 되돌려놓는 서사구조는 전쟁과 실패한 혁명 사이의 시간을 되풀이하는 독특한 플롯을 형성한다.

이러한 결말과 도입부의 연결은 익숙한 여성수난의 플롯을 전쟁의 폭력성·부정의(不正義)·억압적 질서에 대한 끝없는 투쟁을 약속하는 순환의 플롯으로, 그러나 비동일적인 운동성을 갖는 나선형의 플롯으로 전복시킨다. 나선형의 순환 구조는 원의 순환 구조와 달리 계속해서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한다. 직선적인 방향만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근대성에서 탈피할 때, 그러한 이동성은 일종의 전진으로 해석되고 비동일적 반복을 통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하영이 여성성에 구속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 전쟁과 혁명, 그리고 사랑의 기표를 연결하는 불타는 생명력의 담지자이자 투쟁의 주체로서 삶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불타는 신전』의 플롯은 잠재성을 함축한 나선형의 플롯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5 나가며

『불타는 신전』은 주인공 강하영을 둘러싼 젊은 남녀들의 내면과 복잡한 관계를 서사의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배경은 모든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는 실존적 위기 상황을 인물들에게 제공한다. 정연희는 등단작 「과류상」에서부터 초기단편들에서 한국전쟁을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무너트리고 죽음을 직면시킴으로써 인간의 실존을 자각하게 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재현해왔다. 특히 초기단편들에서 남성청년들은 주로 탈영병이거나 무기력하게 분열과 불안에 시달리는 지식인으로 등장하며 무의미 속에서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실존적 탐색을 특징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정연희가 1950년대에 그려낸 여성청년들 또한 주로 여대생으로 등장하며, 전후의 혼란 속에서 젠더적이고 경제적인 계층적 문제를 통찰하고 불복종과 홀로서기를 시도함으로써 복합적인 타자성에 저항하는 존재들로 그려진다.³⁵

1950년대 정연희 소설과 마찬가지로 『불타는 신전』에서도 전후사회의 청년에 대한 형상화 방식에는 젠더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전쟁은 남성청년들에게는 전장에 내몰리거나 자유를 포기하고 은신해야 하는 박탈의 상황을 야기하며, 주체성과 이념적 회의를 일으킴으로써 주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 반면 여성청년들에게 전쟁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전쟁의 폭력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남성성에서 비롯되는 폭력까지 이중의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이며, 그에 따라 전쟁은 타자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 그럼에도 『불타는 신전』은 여성의 타자화를 통한 남성의 주체화, 순수한 민족성의 회복과 같은 가부장적인 근대국가 이데올로기로 포섭되는 대신 타자성을 목도하고 이상에서 벗어난 여성성과 기존의 주체성 구조를 위협받으면서 재구성되는 남성성의 만남 속에서 민족, 국가, 이

35 「나선계단」, 「어느 하늘 밑」, 「조약돌」의 주인공은 위태로운 존재론적 조건 속에 타자성에 저항하는 여대생이다. 1950년대 담론장에서 미성숙하고 경계적인 섹슈얼리티로 재현된 여대생 표상을 전유하는 텍스트로 정연희의 1950년대 단편들을 다룬 연구로는 표유진, 앞의 글, 21-41쪽 참고.

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연인들의 공동체를 구성해나간다. 『불타는 신전』은 전쟁과 전후의 답론 속에서 타자화된 여성을 실존적 자아로 불러냄으로써 일체의 관념적 질서에 맞서는 주체를 그려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신성화보다는 탈신성화를 감행하는 능동적이고 위반적인 여성들의 수난사를 실존적인 투쟁의 서사로 전유하고 있다.

그러나 『불타는 신전』은 1965년에 연재된 작품인 만큼 1950년대 정연희 소설의 실존문학적 성격의 연장선상에만 읽혀질 것이 아니라, 1960년대의 시대적 답론 속에서 ‘혁명’이 갖는 의미와 함께 사유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문학에서 4.19혁명이 갖는 의미를 상기할 때, 『불타는 신전』의 결말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인 혁명의 실패는 4.19혁명을 연상시킨다. 작품 속에서 혁명의 배경은 1950년대 중반이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청년들의 신념과 의지는 4.19혁명의 이념과 상통한다. 하영의 실존적 투쟁의 크로노토프가 전쟁과 혁명 사이에서 나선형으로 반복됨은 1960년대라는 창작 시점을 고려할 때 한국전쟁과 4.19혁명 사이의 국가재건기로서의 1950년대 중·후반의 시대적 역동성과 잠재성³⁶을 다시 불러내고, 그로부터 다시 혁명의 가능성을 사유하고자 하는 문학적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타는 신전』은 정연희의 1950년대 소설의 실존주의적 성격과 1960년대 소설의 여성주의적 성격이 맞닿는 작품이며, 196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전쟁과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사랑이라는 대중문학적 소재를 통해 여성이라는 타자의 관점으로 재사유하는 텍스트로서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36 1950년대를 한국전쟁과 4.19혁명 사이에 위치한 방향성 없는 혼란과 미결정성으로 해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기존 질서가 무너진 가운데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고자 하는 욕망들의 역동적인 경합의 시대로 재조명하는 사회학적이고 역사학적인 연구들이 제출되어왔다. (홍석률, 「크게 본 1950년대: 종결되지 못한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난민의 삶」,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 창비, 2016, 19쪽.) 정연희의 1950년대 소설들은 불안정한 존재들과 타자들의 욕망을 재사유하고 조명하면서 사회와 삶의 부조리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1950년대의 역동적인 시대성을 담아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불타는 신전』이 한국전쟁과 4.19혁명, 혹은 한국전쟁과 4.19혁명 이후 1960년대 중반의 억압적 현실 사이의 혼란한 시기를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잠재성과 가능성의 시기로 경험하고 재현했다는 해석은 가능해보인다.

또한 전쟁과 혁명이라는 중대한 문제와 실존주의적 주제를 담은 『불타는 신전』이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소위 ‘통속문학’으로 저평가된 대중문학에 속해있다는 사실은 통속성이나 선정성으로 일축되었던 대중문학을 재조명하여 구체적인 텍스트들과 작가, 그리고 작가의 젠더에 따른 다양성을 밝혀낼 필요성을 제기한다. 『불타는 신전』을 비롯한 대중문학들, 특히 남성중심적인 본격문학에서 소외되어 1960년대 대중장편소설의 작가로 전향한 여성작가들의 소설에 주목하는 작업은 기존 한국문학사의 고질적인 이분법과 배타성에 대해 성찰하고 여성문학사를 포함한 새로운 문학사의 수립을 시도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가능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정연희, 『불타는 신전』, 『조선일보』, 1965.1.1.-1965.11.21.
 ——, 『불타는 신전 上』, 대운당, 1979.
 ——, 『불타는 신전 下』, 대운당, 1979.
 「여성심리의 심층을 파헤치고 싶어요…」, 『조선일보』, 1964.12.22.

단행본

- 권영민, 『한국문학사』 2, 민음사, 1994, 150-167쪽.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 신구문화사, 1996, 378-379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10, 360-379쪽.
 서정철, 『인문학과 소설 텍스트의 해석』, 민음사, 2002, 425-458쪽.
 이상진, 「존재의 근원에 대한 여성적 투시—정연희론」, 『페미니즘과 소설비평—현대편』, 한길사, 1997, 343-387쪽.
 임옥희, 「가족로망스: 외디푸스화와 욕망의 삼각형」,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13, 19-33쪽.
 천이두, 「에고의 구도적 대현실적 자세—정연희론」, 『현대한국문학전집 13』, 신구문화사, 1965, 472-476쪽.

홍석률, 「크게 본 1950년대: 종결되지 못한 분단과 전쟁, 그리고 난민의 삶」,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50년』, 창비, 2016, 11-32쪽.

마르틴 하이데거,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182-246쪽.

미하엘 바흐친, 전승희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98, 407쪽.
_____,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창작론(도스토예프스키 시학의 제(諸)문제)』, 중앙대학교출판부, 2003, 131-236쪽.

장 폴 사르트르,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93, 7-50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159-163; 205쪽.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25-106쪽.

논문

강지윤, 「원한과 내면-탈식민 주체와 젠더 역학의 불안들」, 『상허학보』 제50호, 상허학회, 2017, 9-45쪽.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5-134쪽.

권미진,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생태의식 연구 :오정희·정연희·정찬·한승원 소설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프래그머티즘」, 『한국문학연구』 제35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8, 101-147쪽 참고.

김미현, 「金裕貞 小説의 카니발적 構造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김복자, 「헤겔의 변증법적 관점에서 본 이브에 대한 재해석」, 『문학과종교』 제6권 1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01 121-138쪽.

김현, 「허무주의와 그 극복」, 『사상계』 제16권 2호, 1968, 사상계사, 297-309쪽.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1호, 한국현대문예

- 비평학회, 2006, 315-335쪽.
- 송인화, 「1960년대 연애 서사와 여성주체-정연희 「석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25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143-175쪽.
- _____,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자기세계’ 구축 방식과 나르시시즘의 의미」, 『비평문학』 제3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0, 211-239쪽.
- _____, 「196, 70년대 감성-규율-프레임과 젠더—정연희 자전소설에 나타난 불륜 담론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3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385-415쪽.
- _____,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적 상상력과 여성 정체성」,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1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0, 151-181쪽.
- _____, 「정연희 소설의 죄의식 연구」, 『문학과종교』 제17권 2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2, 105-126쪽.
- _____,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성 연구」, 『문학과종교』 제19권 3호,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14, 63-86쪽.
- _____, 「저항에서 생명으로, 자연을 통한 화해와 치유-정연희 소설의 생태의식」, 『문학과 환경』 제18권 3호, 문학과환경학회, 2019, 155-189쪽.
- 연남경, 「1950년대 문단과 ‘정연희’라는 위치-전후 지식인 담론과 실존주의 수용의 맥락에서」, 『구보학보』 제27호, 2021, 89-121쪽.
- 이은기, 「육정의 대상에서 인류의 조상으로-14~5세기 이탈리아에서의 이브인식의 변화-」, 『미술사연구』 제18호, 미술사연구회, 2004, 203-228쪽.
- 정보람, 「1950년대 신세대작가의 정치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진선영, 「한국 대중연애서사의 이데올로기와 미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진은영, 「니체와 문학적 공동체」, 『니체연구』 제20호, 한국니체학회, 2011, 7-37쪽.
- 최미진, 「정연희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자리매김 방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395-417쪽.
- _____,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정연희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집』 제25권, 한국문학회, 1999, 77-96쪽.

표유진, 「1950년대 소설의 여성표상 전유와 몸 연구-정연희, 한말숙, 강신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Abstract

Subverting the Narrative of Women's Suffering: Rewriting Love, War, and Revolution
– An Analysis of Jeong Yeon-hee's novel *The Burning Temple*

Pyo Yujin

Jeong Yeon-hee's novel *The Burning Temple* is a unique novel that exists at the intersection of the existentialism of Jeong Yeon-hee's 1950s novels and the feminism of Jeong Yeon-hee's other serial novels from the 1960s. The novel *The Burning Temple* disrupts the gender and genre binary separating male-centered mainstream postwar literature and marginalized popular literature.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is novel is unique because it centers the narrative on women's sexual hardships within the context of the Korean War. Simultaneously, the novel tells the story of a young woman who establishes her existential self, an approach that departs from the typical narratives of women's hardship that sought the re-consecration of postwar literature and melodrama. In addition, the story points toward the potential for community to overcome hardship and emptiness through love. *The Burning Temple* depicts war as an opportunity for women to achieve existential awareness and objectified female awareness, and it depicts the process of female subjects re-emphasizing motherhood through love and forming a female homo-social community of "Eve," which deviates from the ideological social system. The failure of the lovers' revolution leads to the collapse of the sisterhood community; however, this reminds us of the existential conditions that forced us to struggle with the world due to the impossibility of existing outside the system. Furthermore, *The Burning Temple* represents the determination of young women as existential subjects by restructuring the recurring plot of women's suffering into a spiral plot with motility in a way that differs from modern, straightforward progress. This approach is significant in literary history, as it constitutes an original attempt by a female writer to re-emphasize love, war, and revolution in the eyes of an objectified woman through literature in the mid-1960s.

Key words: Narrative of Women's Ordeal, *The Burning Temple*, Existentialism, Female Community, Newspaper Serial Novels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